

유고슬라비아 勞働者 自治管理制度의 理念的 定向*

고 충 석

目 次

- | | |
|----------------|---------------|
| I. 머릿말 | Ⅲ. 産業民主主義的 定向 |
| II. 마르크스주의적 定向 | IV. 結 論 |

I. 머 릇 말

1984年 여름 유고슬라비아가 모스크바와 결별하면서 社會主義를 위한 自身들의 길 즉 自治的 社會主義 (self-governing socialism)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발전시켰다. 그런데 이 Model의 핵심은 各企業에 허용되고 있는 勞働者自治管理制度라고 할 수 있고 이것때문에 여타 「東歐」諸國의 發展모델로서 유고共產主義가 논의되고 있다.

1950年 6月27日 「勞働者集團에 의한 國家經濟企業 및 上位經濟聯合의 管理에 關한 基本法」 (Basic Law on the Management of State Economic Enterprises and Higher Economic Association by Work Collectives)¹⁾이 통과됨에 따라 勞働者自治管理가 法的으로 制度化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것은 이 나라의 政治 經濟 社會의 構造改革을 目標로 하는 改革의 出發點이 되었다. 더우기 1971年 憲法改正 以後 同 制度는 強化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制度의 도입의 決定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²⁾ 이 制度의 發展은 먼저 1950年 6月以前 戰後 유고슬라비아 經濟體制의 改革 즉 諸 經濟部門에 對한 行政的

* 이 論文은 1983年度 文教部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1) 勞働者 自治管理制度의 原則을 同法 第1節에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製造業, 鑛業, 通信, 運輸, 商業, 農業, 林業, 市營의 기타 公共企業은 全國民의 財産으로서 기기에 忠實하는 勞働者 集團에 의하여 上記의 經濟 計劃의 一部로서 法律이 定한 權利義務에 기초하여 管理된다. 노동자 集團은 企業의 노동자評의회와 경영이사회를 통하여 企業을 管理한다. ILO編, ユーゴ슬라비아의 企業における 勞働者 自治管理制度—社會主義 民主主義—, 高橋正雄譯, 東京, 至誠堂, 昭和49年, p.1.

2) Ibid, p.2.

統制權이 聯邦으로부터 共和國 地方政府로 이양되므로 位階메카니즘적인 經濟構造의 特性이 완
화되고 또한 巨視的 側面에서의 提示的 經濟計劃(indicative economic planning)의
틀속에서 企業의 자원배분이 市場메카니즘에 依存하는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的
社會主義의 채택³⁾과 연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고슬라비아 勞動者自治管理制度
도 이 나라의 거시적인 경제체제의 改革속에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유고슬라비아 勞動者自治管理制度의 萌芽는 이미 第2次大戰中인 反파쉴스트
民族解放運動時期에 發見된다. 1941年 1月 5日 세르비아에 있는 Krupanj의 해방위원회는
決意를 通하여 그 곳에 있는 안티몬공장에 勞動者統制委員會를 결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 委員
會는 노동자전원에 의하여 선출되며 工場은 自體的으로 管理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이어
Uzice, Čacak 등지로 확산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와 관련하여 이미 外勢에 시달리
던 19C에 세르비아에서는 地域住民들의 自律的인 自治團體가 存在했었다는 사실과 또 이 당시
그 곳에서는 Sretozar Marković(1846~1875), Dimitrije Cenić(1851~1888)
등 比較的의 體系인 勞動者自治觀을 發展시킨 思想家들이 存在했다는 事實을 상기한다.⁴⁾ 그러
나 戰後 經濟領域에서의 意思決定過程의 變化를 위한 최초의 움직임은 1949年 5月 議會에서
行한 企業經營에 있어 勞動者들의 참여확대를 強調한 Edvard Kardelj 연설에서 비롯된다.
이에 뒤이어 黨과 政府 및 勞組들이 참여하는 一連의 회의를 거쳐 勞動者自治思想은 점차 구체
적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 해 12月 聯邦政府의 經濟評議會 및 勞總中央委員會의 권장에 따
라 215個의 勞動者評議會(workers' council)가 企業內에 構成되고 1950年 6月까지는
520個의 노동자평의회가 결성된다. 그러나 노동자평의회는 機能은 諮問에 그치는 黨의 부속기
관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950年 봄 法律에 의해 노동자평의회에 절대적인 企業統制權을
부여하고 따라서 이것을 유고의 政治體系와 朝鮮의 政治體系를 區別해 주는 주요한 제도로 만
들 것을 提案한 Djilas, Kardelj, Kidric'의 요구를 Tito가 수락하므로써⁵⁾ 勞動者自
治管理制는 制度化的 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볼 때 1950年 6月 27日의 이 法律은 이미 그
때까지 行해져 급속히 發展한 勞動者自治管理制度의 대부분의 실험을 公式的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⁶⁾고 할 수 있다. Tito는 이 基本法이 國會에 통과한 事實을 指摘하여 전쟁직후 國
有化措置보다도 意義있는 歷史的인 사건⁷⁾이라고 말하고 있다.

3) A. Ross Johnson,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Ideology; The Yugoslav Case, 1945 ~ 1953,
(Massachusetts;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72), p.165.

4) Rohgt K. Furtak, Jugoslawien, a.a.O., pp.20-21; 安秉永, "유고슬라비아 勞動者自治 管理制度의 葛藤
構造," <亞細亞研究>, 제 XXVII권 제 1호 (통권 제 71호), 1984, 서울, 고대아시아 문제연구소, pp.148-
149에서 再引用.

5) Sluzbeni list FNRJ No.43 (1950); A. Ross Joss Johnson, op. cit., p.16에서 再引用

6) ILO編, Dp.cit., p.1.

7) Ibid.

勞働者自治管理制度⁸⁾의 基本要素는 각 企業의 各 勞働者에 의해 選出되는 노동자평의회 (workers' council)이다. 法律上 7名以上の 勞働者를 가지고 있는 企業은 모두 노동자평의회를 選出하게 되어 있는데 30명 以下の 勞働者를 가진 企業에서는 그 會員이 勞働者評議會를 구성한다. 現在 유고슬라비아에 있어 이 보다 큰 企業體의 勞働者評議會는 15名으로 부터 120名에 이르기까지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데 勞働者評議會의 평균 구성원수는 20名 내지 22名이다. 그리고 大規模의 企業體에서는 企業內의 여러 單位에 그 自體의 勞働者 評議會를 들 수 있다.

이 勞働者評議會는 經營을 直接的으로 담당할 經營이사단 (managing board) 을 選出한다. 이 經營 이사단의 크기도 企業體에 따라 다르나 3名 내지 17名으로 構成되어 있고 이 經營이사직에는 勞働者評議會의 構成員이 아닌 勞働者도 選出될 자격이 있다. 1964年 이후 勞働者評議會는 企業體의 企業長 (director) 도 選定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企業長은 널리 광고를 통해서 여러 지원자中에서 뽑게되는 것이다.

企業長은 企業의 매일·매일의 經營을 총괄하여 담당하고 經營이사단은 이 企業長의 經營을 감독하기 위해 일주일에 여섯 일곱차례씩 만나고 勞働者評議會는 한달에 한 번씩 會議를 개최한다. 企業長은 經營理事團의 自動 理事로 참가하고 이 經營理事團의 會議에서도 종종 주도적인 役割을 한다고 한다. 또 企業長은 勞働者評議會에서 決定된 經營지침을 수행키 위해서 그가 取한 여러가지 조치가 勞働者評議會에 간섭받지 않을 權限을 갖고 있다고도 하나 그는 勞働者評議會의 결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는 것이다.

勞働者評議會의 構成員의 任期는 2年이고 經營理事團의 任期는 1年이고 企業長의 任期는 4年으로 되어 있다. 經營理事團의 이사직은 두번 계속 選出되어 2年을 말으면 그 다음 2年間은 理事職을 맡을 資格이 없어진다. 이러한 임기제한은 可能的限 많은 勞働者들이 經營參加의 經驗을 갖도록하기 위해서 나온 政策으로 풀이된다.

本研究는 이와같은 유고슬라비아 勞働者自主管理制度的 理念的 基盤 (ideological foundation)이 무엇에 준거 (reference) 하고 있는가를 分析해 보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制度의 思想的인 바탕이라던가 理念的 定向 (ideological orientation)을 解明해 보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本研究가 取하는 方法은 「밖으로부터」⁹⁾가 아니고 立場을 바꾸워서 「안으로부터」 이 제도의 이념적 傾向을 理解해보고 저한다. 쉽게 풀어서 說明하면 유고共産主義者들과 학자들이 자기들의 勞働者自治管理制度的 理念的 定向을

8) 以下の 內容은 Carole pateman,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pp.85-112에서 요약한 것이다.

9) 대개 共産主義體制를 「밖으로부터」 파악하려는 시각에는 여러 Model이 있지만 전체주의 Model과 近代化 Model을 들 수 있다.

理解하는 式으로 파악해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引用하는 文獻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들이 주로 접근하는 視角은 마르크스주의와 産業民主主義이다. 前者는 Kardelj 같은 유고슬라비아 共產主義理論家들에 의해 後者는 Rudi Supek 같은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勿論 여기에는 유고슬라비아출신은 아니지만 급진적인 視角에서 産業民主主義를 接近하고 있는 Carole Pateman, Bengt Abrahamsson 과 같은 서구학자들도 포함된다.

또한 이와 關聯하여 하나 指摘되어 저야 할 것은 유고슬라비아 勞働者自治管理制度가 단순히 勞働者의 自治管理的인 勞働共同體 (Production community) 에 그치지 않고 코뮌에서 聯邦에 이르는 社會地域의 共同體와 連脈되므로 하나의 統合된 社會政治的 體制(a unified socio-political system)를 形成하고 있다는 點이다. 따라서 노동자자치관리제도는 이 나라의 統一的인 社會自治管理體制의 下位體制(sub-system)¹⁰⁾로서 理解되어져야 될 것이다.

끝으로 本研究의 유용성 (usefulness)이 무엇이나 하는 點이다. 그것은 유고슬라비아 勞働者自治管理制度의 分析을 通해서 Marxism의 복합적인 틀 (framework)의 性格을 理解해 보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유고슬라비아 共產主義體制的 理解를 위한 서설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II. 마르크스주의적 定向

이른바 참여적 사회주의에 對한 理念은 멀리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마르크스 무정부주의자 길드사회주의자 신디칼리스트 및 현대의 뉴레프트(New Left)에 이르기까지 그 그 연원이 다채롭다.¹¹⁾ 그러나 勞働者自治管理制度를 合理化시키고 거기에 正當性(legitimacy)을 부여하기 위해서 유고슬라비아 共產主義者들이 주로 준거하고 있는 이론적인 脈絡은 Marx, Engels, Lenin의 思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이 노동자자치관리제도와 關聯시켜서 주로 引用하는 마르크스思想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고슬라비아에 있어서 勞働者自治管理制度가 企業內에 도입되게 된 理念的인 배경에 對해서는 國家의 사멸 (The withering away of the state)과 自由로운 생산자 연합 (Association of free producers)에 의한 國家의 代置에 관한 Marx와 Engels의 脫國家化(Deetatization)이론에 준거해서 설명되어 지고 있다.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들이 引用하고 있는 脫國家化論의 핵심은 필자나름대로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10) Kardelj, Problemi 2: 111, A. Ross Johnson, op. cit., pp.151-152에서 再引用.

11) Howard M. Wachtel, Workers' management and workers' Wages in yugoslavia, The Theory and Practice of Participatory Socialism Clithaca; Cornell universty press, 1973), pp.8-33; 安秉永, 앞의 논문, p.142에서 再引用.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國家와 社會를 二分法的으로 對立시켜 理解하고 있다. 國家는 社會의 階級的의 發生과 더불어 發生하였고 그것은 本質上 經濟的으로 支配하는 계급의 國家이고 支配階級이 被支配階級을 억누르기 위한 手段이기 때문에 社會에 있어서 階級이 사라지면 國家自體도 사라진다는 것이다.¹²⁾

國家는 영원한 옛날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國家가 없어도 살 수 있었던 社會, 國家와 國家權力을 예상조차 못했던 社會가 한 때 存在했다. 社會의 계급적 분열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던 經濟的 發展의 一定한 단계에서 이 분열에 의하여 國家가 하나의 필연사가 된 것이다. ……………계급의 발생이 불가피했던 것처럼 그 소멸도 불가피할 것이다. 계급이 소멸하면 國家도 불가피적으로 소멸한다. 생산자의 自由平等한 결합을 토대로 하여 生産을 새로 組織하는 社會는 국가기구전체를 그것이 그때 가서 소속될 공장에 갖다 놓을 것이다. 즉 물체와 청동도끼와 나라히 골동품박물관에다……………¹³⁾

그러면 Marx와 Engels는 國家가 소멸하는 時期를 언제로 設定하고 있는가? 그들은 共產主義社會가 오면 社會內에 諸階級이 소멸하기 때문에 國家도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資本主義社會에서 共產主義社會로 넘어가는 過程에 과도기로서 <프로레타리아 독재기>를 설정하고 있다. 즉 프로레타리아革命에 의해서 부르조아기구가 전복된후 노동자계급은 우선 國家權力을 장악하고 자기자신을 支配階級으로 높인 다음 <부르조아>부활과 복수 및 그의 잔재를 完全히 근절할 수 있도록 一定한 期間의 과도기가 必要한데 이 期間의 國家를 프로레타리아 國家라고 말하고 있다.¹⁴⁾ 그런데 이 期間동안에 일어나는 經濟的 變革中 중요한 特徵의 하나는 자본가계급으로부터 工場, 기계, 토지등과 같은 生産手段을 빼앗아 그것을 國有化하는 즉 生産手段의 國有化조치라는 것이다.¹⁵⁾

이러한 過程이 끝나면 國家는 서서히 소멸의 과정을 밟게되는데 특히 國家의 기존의 經濟的 機能에만 限定해서 보면 Marx와 Engels는 이에 對해서 具體的인 청사진을 提示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國家가 수행하던 經濟的 機能은 「生産者의 自由平等한 결합을 토대로 결합된」¹⁶⁾ 自由로운 生産者聯合 (association of free producers)에 그 機能이 이양되어 진다는 것이다. 즉 단기의 일시적 機關으로서의 國家의 經濟的 權限과 自由生産者聯合이라는 형태의 社會의 經濟的 權限을 分離¹⁷⁾ 하고 國家의 소멸과정을 거치면서 國家의 기존의 경제적 권한이

12) F. Engels,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Moscow, 1948, p.241.

13) Marx, Engels,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Berlin, 1958, S.9; 양호민, 共產主義理論과 現實 批判全書, 第1卷, 맑스레닌주의(理論批判編), 서울, 内外文化社, p.206에서 再引用.

14) Ibid., S.225.

15) Ibid., S.35.

16) Ibid., S.9.

17) 볼프강 레몬하르트, 공산주의 이념의 변질, 김광수 옮김, 서울 종로서적주식회사, 1983, p.156.

社會의 自由로운 勞働者聯合으로 넘겨지게 된다¹⁸⁾는 것이다.

이상과같은 Marx와 Engels의 論議에 準거해서 유고슬라비아 社會主義理論家들은 勞働者自治管理制度에 관한 理念的 설명을 加한다. 그들은 Marx와 Engels의 根本理念을 오늘날의 경제영역에서 실현시킨 것이 노동자자치관리제도라고 주장한다. 다른 말로 한다면 脫國家化政策으로서 경제분야에 도입된 것이 勞働者自治管理制度이며 이는 점차로 國家의 사멸을 불러온다는 것이다.¹⁹⁾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프로레타리아>革命에 의해서 國有化된 企業體를 自由로운 생산자연합 (association of free producers)에 該當하는 勞働者社會集團의 손에 넘겨 주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⁰⁾ 즉 國家사멸의 중요한 고리는 생산수단의 國家的 所有가 아니고 生産手段의 社會化에 있다는 점이다. 유고슬라비아 社會主義理論家에 의하면 社會主義의 發展을 爲해서는 政治體制뿐만 아니라 個別工場水準에서의 구체적인 社會關係의 變化도 요구되는데 勞働者自治管理制度에 관한 1950年 基本法이 바로 1871년 파리코뮌의 오랜 숙제였던 “勞働者들에게 工場”을 넘겨주는 社會關係의 變化의 출발을 알리는 최초의 조치라고 주장되어진다.²¹⁾ 이는 勞働者自治管理制度의 도입을 통해서 國家의 所有權이 社會集團의 所有權으로 바뀌지게 됐다는 것을 意味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 의하면 社會的 所有(social property)의 개념을 國家所有에 對立되는 法的인 의미 (legal term)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社會經濟的인 category로 認識된다. 따라서 이는 어느 個人이나 集團, 國家와 같은 特定한 주체에 계속되는 法的인 권한이 아니라 社會的 問題 내지 生産關係라는 것이다.²²⁾ 그러므로 이것은 勞働者社會集團이 企業의 새로운 所有주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企業의 管理權이 全體社會의 利益을 위해 社會에 의해 勞働者集團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意味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유고슬라비아 社會主義理論家들은 勞働者自治管理制를 사회주의참여제도의 基本模型으로 설명하고 있다. 企業內的 勞働者自治管理制度의 창설을 통해서 Marx思想의 요체인 생산된 잉여가치에 對한 勞働者의 直接統制가 可能해졌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것과 관련하여 주로 引用하는 文獻은 Marx의 파리코뮌²³⁾과 Lenin의 「國家와 革命」이다. 따라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이론가들에 의하면 1871年 Paris Commune이 勞働者自治管理組織의 典型으

18) 이에 對한 자세한 內容을 A. Ross, Johnson, op. cit., pp.143-158 참조.

19) 볼프강 레몬하르트, 앞의 책, p.156.

20) 같은 책, p.149.

21) Tito, Speech of June 26, 1950, Govori i Clanci ; A. Ross Johnson, op. cit., op.cit., pp.162-163에서 再引用.

22) Djordjevic, Ustavno pravo FNPJ, p.107 ; A. Ross Johnson, op. cit., p.163 및 安秉永, 앞의 논문, p.143에서 再引用.

23) 파리코뮌은 내란에 의하여 1871년 3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사이에 파리일각에 수립되었던 사회주의자들 中心의 시민혁명 정부를 말한다. 양호민, 앞의 책, p.216.

로 또한 Lenin 의 「國家와 革命」(State and Revolution)이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 社會組織運營의 理念的인 지침서 (ideological guidane)로서 理解되어지고 있다. Marx 와 Lenin 은 다같이 그들의 책에서 조직內의 민주화 즉 脫官僚制化에 분석의 軸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의 思想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Marx 에 의하면 Paris Commun이 治者와 被治者의 同一性을 實現하려는 면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하는 民主主義制度²⁴⁾ 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官僚制에 關한 Marx 의 見解는 國家의 性格에 關한 그의 解釋과 깊은 關係를 가지게 되는데 Marx 는 Hegel²⁵⁾ 과는 달리 官僚制를 자본주의 부로조아이익이 實現되기 위한 수단이 되는 하나의 사회적 힘 (social force)²⁶⁾ 으로 規定하고 <프로레타리아> 革命에 의해서 資本主義가 사멸되면 同時에 國家의 下位機關이 었던 官僚制도 脫官僚制化 (debureaucratization) 되는데 이 脫官僚制의 기본적인 模型이 바로 Paris Commun이라는 것이다. 이 파리코뮌에서 Marx 는 평등주의적 價値 (egalitarian value)와 그에 따른 조직구조, 立法, 行政體로서의 機能과 社會主義의 궁극적인 革命的 目的사이의 밀접한 연계를 強調한다.²⁷⁾ 그런데 파리코뮌에서 特히 官僚制의 行政機能이 부로조아統制가 아닌 勞動者統制 (workers' control)에 의해서 民主化되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의 주요한 의미는 짧은 기간동안의 成功보다는 勞動者組織 자체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勞動者組織은 직접 선출된 노동자대표들에 의해서 그 機能이 수행되며 一般勞動者들은 자기들의 代表를 즉시 召還 (immediate recall) 할 수 있고 代表들의 賃金水準은 一般의 他勞動者와 同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⁸⁾

이와같은 파리코뮌을 바탕으로 Lenin은 그의 저서 「國家의 革命」(State and Revolution)에서 脫官僚制에 따른 國家機溝를 대체하기 위한 기본양식을 다음과같이 說明한다.²⁹⁾

- i) 個個의 公務員 (public officials)은 즉각적인 召還 (immediate recall)에 의해서 登용되어야 한다.
- ii) 公務員의 봉급은 일반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iii) 行政業務 (administrative tasks)는 單純化되며 코뮌의 모든 구성원들간에 순환

24) 같은 책, p.218.

25) Hegel 에 따르면 官僚를 통한 行政은 한편으로는 國家, 다른 한편으로는 社會에서의 다양한 집단과 계층을 연결시켜 주며 따라서 國家官僚制는 特定利益을 一般利益으로 여과시켜 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 하였다. Martin Albrow, Bureaucracy, (London; Pall Mall, 1970)

26) K. Marx, The German Ideology; M. Albrow, op, cit., p.70에서 再引用.

27) H. Peter Dachler and Bernhart Wilpert, "Conceptual Dimensions and Boundaries of participation in Organizations; A Critical Evalu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23, No.1 (March, 1978) p.6.

28) Steward clegg and David Dunkerley, Organization, Class and Control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0), p.114.

29) Selected Works, VII:92 ; Bengt Abrahamson, Bureaucracy or Participation (Beverly Hills; Sage Publisher, 1977), p.48에서 재인용.

(rotation) 되어야 한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유고슬라비아 社會主義理論家들은 企業內에 모든 企業體 종사자가 뽑은 勞動者評議會 (workers' council)가 창설되었고 이것이 企業經營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게 되었다는 點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에 의하면 이 나라 勞動者自治管理的인 勞動組織이야말로 位階mechanism的인 구조를 갖는 官僚制的인 組織이 아니고 企業活動에 관한 주요결정에 노동자 스스로 참여해서 決定하는 脫官僚制化된 Paris Comme의 모형으로서 인식되고 合理化되고 있다.

한편 유고슬라비아 이론가들은 勞動者自治管理制度의 사상적 바탕을 「젊은 마르크스」“(Junger Marx)”가 強調한 産業社會속에서의 疎外³⁰⁾ 止揚과 人間化³¹⁾에서 찾기도 한다. 다른 말로한다면 소외극복이라는 차원에서 노동자자치관리제도가 논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고슬라비아 이론가들은 企業內에 勞動者自治管理制度가 창설되므로서 노동의 잉여가치에 對한 노동자의 直接的인 統制가 可能하게 되었고 企業의 주요活動에 對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노동자가 自治的으로 참여하고 결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생산과정속에서 상이한 기능수행등을 통한 기술적 분업이 폐지되므로 노동공동체³²⁾ (production community)가 형성 되었다고 주장한다. Tito는 勞動者評議會 (Workers' council)에 관한 法律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노동자평의회 (workers' council)는 諸社會關係를 一貫해서 社會主義方向으로 變化시키고 그것을 保障한 제도다. 말하자면 이 제도의 창설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歷史上 처음으로 生産者이면서 同時에 管理者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結果는 歷史的으로 存在해 온 계급 사회의 모순과 분업, 管理者와 生産者 또 육체노동자와 精神勞動者의 區分이 극복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同時에 이것은 또한 直接的인 生産者가 全體社會를 위해서 物資 (material goods)를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式으로도 그것을 管理하지 못하거나 최저수준정도까지도 배

30) K. Marx,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Dirk J. Struik, translated by Martin Milliga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4); 마르크스는 노동의 영역에서 소외는 네가지 측면을 가진다고 보았다. 즉 人間은 그가 생산한 대상으로부터, 생산과정으로부터 그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동료들의 공동체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이다. (참조: 루이스코저, 신용하, 박명규 역, 「사회사상사(I)」, 일지사, 1978, pp.83-87 및 정문길, 「소외론 연구」문학과학적서사, 1978)

31) 安秉永, 앞의 논문, p.144.

32) 노동자 자치관리제가 私의 利益과 私의 生活을 우선하는 자본가적 이기주의에 의해서 말살되었던 共同體 (community) 개념을 재건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Rudi Supek, "Participation and Industrial Democracy" in Josip Obradovic and William N. Dunn (eds), Workers' Self-managemen and Organizational power in Yugoslavia (Pittsburg; University Center for Inteinternational Studies, Universty of pittsburg, 1978), p.156.

분발지 못했던 모든 계급사회가 歴史的으로 가지고 있는 모순과 한계가 解決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前에는 물자를 관리하고 배분하는 이러한 일이 지배계급인 자본가나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서 社會에 군림했던 세력인 國家와 官僚制에 의해서 수행되어졌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生産關係 즉 생산과 노동생산물의 分配間의 관계를 根本적으로 變化시키는데 있다.³³⁾

이상과같은 Marx, Engels, Lenin의 思想的인 핵심은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生産者의 自治的 決定으로 集約해볼 수 있는데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理論家들은 企業內의 勞働者自治管理制度의 도입은 이것을 경제영역에서 실천에 옮긴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勞働者가 모든 주요한 생산기능수립에 직접참여하는 자치관리적 勞働組織의 창설만이 正統的 마르크스주의로 귀의하는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다.³⁴⁾

특히 이들은 自治管理社會主義 (self-governing socialism)이라는 틀을 가지고 朝鮮의 사회주의 모형을 공박한다. 이미 1949년 末, 本格的으로는 1950년 봄 유고슬라비아 理論家들사이에 朝鮮의 내부구조에 對한 批評이 일기 始作했는데 이들에 따르면 朝鮮의 社會主義 模型은 集權的 官僚獨裁體制로서 社會主義의 理想中 가장 요긴한 것 즉 生産者의 自治的 決定과 生産手段의 社會化를 毀損한 퇴영화된 모습이라고 공박했다.³⁵⁾

朝鮮의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生産手段의 國有化는 社會的 所有의 높은 형태가 아니라 가장 낮은 형태이기³⁶⁾ 때문에 그것을 사회주의의 진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기준이 생산수단의 운영이 실제로 社會成員이 意思에 따르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보기³⁷⁾ 때문에 생산수단의 國有化 自體가 이 問題를 解決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문제의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³⁸⁾ 따라서 그들에 의하면 <프로레타리아> 革命後 과도기로서의 行政的 社會主義 (administrative socialism) 期間³⁹⁾ 이 지나면 생산수단의 사회화과정의 일환으로서 企業의 活動과 발전에 관한 중요한 결정권이 國家行政機關에서 企業內의 勞働者集團이 뽑은 노동자평의회로 이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⁴⁰⁾ 그런데 이 行政的 社會

33) M. Perovic's Postscript to Drus tveno Upravljanje U Jugoslavili (Zagreb, 1960), pp.416-477; A. Ross Johnson, op.cit., p.163에서 再引用.

34) 安秉永, 앞의 논문, p.143.

35) 같은 논문, p.142.

36) Tito, Speech of June 26, 1950, Govori iClanci 5:234; A. Ross Johnson, op, cit., p.163에서 再引用.

37) Wlodzimierz Brus, Socialist Ownership and political systems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Boston), pp.27-32.

38) Branko Horvat, "The Individual and social property in socialism", Gledista, Belgrade, March, 1967, 336; Wolfgang Leanhard, Three Faces of Marxis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p.305에서 재인용.

39) 유고슬라비아 이론가들에 의하면 1945~1948년까지를 이 기간으로 보고 있다. 行政的 社會主義 (administrative socialism)라는 용어대신에 국가자본주의 (state capitalism) 또는 國家社會主義 (state socialism)로 사용되기도 한다.

40) A. Ross Johnson, op, cit., p.163.

主義期間동안에 諸 經濟分野에 걸친 生産手段의 國有化⁴¹⁾를 달성해야 되기때문에 國家 特別 國家官僚들의 社會에 對한 獨점적(monopolistic)인 統制權의 行使가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 의하면 이러한 行政的 社會主義體制가 빠른 時日內에 교정되지 않는다면 工場內에 資本主義的인 諸關係(capitalist relationships)가 영속화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노동자는 임금노동자로 여전히 남게되고 노동자에 의해서 생산된 잉여가치는 기업장을 위시한 國家官僚들의 手中에 그 처분권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⁴²⁾ 이렇게 工場內에서 國家官僚들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가 착취적인 官僚獨裁體制(exploitative bureaucratic caste)의 出發이⁴³⁾ 되는데 생산수단의 國有化에 집착하는 소비에트型 共產主義가 바로 이 官僚獨裁體制라는 것이다.

유고슬라비아 共產主義자들은 朝鮮에서 社會主義가 發展함에 따라 革命 첫해 經濟的 政治的 中央集權化의 경향속에서 官僚가 새로운 支配層을 形式하는 관료독재 체제가 定成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생산수단의 國有化에 의한 이의 中央集權的 運營은 巨大한 官僚機構의 出現을 초래케 했고 이는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資本家-勞動者관계를 國家(혹은 官僚)-勞動者관계로 전환시키므로서 國家와 黨機構는 함께 비대해져 國家는 사멸하기는 커녕 官僚化만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生産手段의 私的所有를 國有化한다는 것은 노동의 소외과정을 다른 차원으로 옮겨 놓는데 불과한 것이지 轉換自體가 자본가 아닌 國家관료에 의한 勞動者의 착취를 不可能하게 하는 保障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Tito에 의하면 勞動者評議會의 企業內의 도입을 결정하면서 行한 그의 연설에서 朝鮮에 있어서 中央集權的인 官僚化가 證되므로 모든 經濟的 政治的 文化的 機能들이 人民들과 접촉이 없는 巨大한 集權化된 官僚機構의 手中에 獨점되는 結果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官僚制는 수천개의 軸수를 가진 폴립(Polyp)처럼 社會주의의 精確하고 급격한 發展을 害하고 害하기 때문에 官僚制化 향은 社會主義發展에 큰 害

41)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생산수단의 國有化 措施는 1948년까지 수공업과 농업을 제외한 經濟的 分분야에 걸쳐 실시되었다. 그 결과 고도로 集團化된 行政機構가 생겨나 그것이 위로는 中央政府에서 부터 밑으로는 個個의 廠장관리자까지 일체의 것을 엄밀한 명령계통으로 동여매게 되었다. 어느 단계로 봐도 권한은 오직 한 사람의 업무집행자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는 國家가 각 企業의 生産계획을 결정하고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한 國民經濟 전체의 운영은 정부와 經濟關係의 各省이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들 기관은 원료와 제품의 배급 가격과 임금의 결정, 종업원의 관리를 시행하며 각기업의 經營실적의 全責을 맡고 있었다. 기업의 이익도 손실도 國家의 재정에 짜 넣어져 있었던 것이다.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의 일반적 견해는 경제에 이러한 중앙집권적 계획과 운영은 당시의 조건하에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보고 있다. ILO編, op, cit., pp.1-2 ; 또한 훗날 Kardelj는 당시의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의 수직을 건국초기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정당화하고 있다. Djordjevic, Ustavno pravo FNPJ, p.107 ; A. Ross Johnson, op, cit., p.163; 安秉永, 앞의 논문, p.149.

42) Kardelj, Speech to the Fourth Congress of the people's Front, problem2: 317-320 ; A. Ross Johnson, op,cit., p.162에서 再引用.

43) Ibid.

이 된다는 것이다.⁴⁴⁾ 또한 Kardelj도 소련의 行政社會主義를 공박하면서 官僚制화가 社會主義를 改惡시켰다고 역설하고 있다.

관료기구의 정상에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가 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서는 社會主義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社會主義는 광범위한 人民들의 주도하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原則을 따르지 않을 때 社會主義는 필연적으로 관료독점체제 化되므로 官僚機構는 人民들과 소원해지고 人民들은 官僚機構에 종속되는 結果를 빚게 된다.

또한 이러한 官僚制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否足的인 현상 예컨대 形式主義, 일의 方法과 組織의 형태에 있어서의 보수주의, 밑으로부터의 自發的인 창의성의 위축, 思想의 침체등을 야기시킨다. 사회주의 國家에서 이러한 官僚制의 特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Marx와 Engels가 지적한 것처럼 國家에 對한 미신적인 外경에서 오는 結果라고 할 수 있다.⁴⁵⁾

더우기 유고슬라비아 理論家들은 소련과 같은 官僚制的인 中央集權的 계획경제체제 (centralized planned economy)는 많은 결함을 갖고 있는데 그 결함들이 최초에는 표면화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해진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官僚機構의 급격한 증가, 경제상의 자극의 부족에 의한 財貨의 生産과 分配間의 균형이 상실되어 行政上의 조치나 처벌에 더욱더 依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는 것이다.⁴⁶⁾ 社會主義經濟는 전체사회가 各自의 個人에게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일일히 구체적으로 규정해주는 mechanism 즉 人間이 創造者로서의 役割이 끝나는 그러한 상태로 바뀌어야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가장 完全한 경제계획도 무수한 可能性 그리고 經濟力의 自發的인 發展에 의해 提供되는 創意性을 결코 총망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社會主義經濟計劃은 國家의 규제조치를 最少化하고 生産과 分配間에 基本的인 比率만 國家가 定하는 指示的 經濟計劃(indicative planning)의 틀속에서 企業의 창의성을 保障해주는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을 指向해야 한다는 것이다. 社會主義의 經濟的 基盤이 과거에는 資本主義의 反命題(antithese)로 定義되었기 때문에 市場, 企業의 自發性, 個人의 創意性등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가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個人에 의한 경제주도만이 또한 국가에 의한 경제주도만이 유일한 代案은 아니고 第3의 代案⁴⁷⁾ 즉 社會集團에 의한 경제주도가 있는데 그것은 社會的 所有를 경제적 기반으로한 勞動組織의 自治管理制度的 창설을 통해서

44) Wolfgang Leonhard, op. cit., pp.267-274에서 再引用.

45) Ibid., p.269.

46) ILO編, op.cit., p.2.

47) Wolfgang Leonhard, op.cit., p.305.

이루워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고슬라비아 理論家들은 朝鮮의 社會主義模型은 行政社會主義 (administrative socialism) 내지 國家社會主義 (state socialism) 이지 社會的所有 (social property) 를 바탕으로 직접생산자들이 自律的으로 어울리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유고슬라비아 자치관리사회주의는 「마르크시즘에 對한 無政府的 신디칼리스트 적 逸脫」이라는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제 朝鮮의 社會主義模型에 對立되는 하나의 對抗模型⁴⁸⁾(Gegen Model)으로의 理論的 實踐的 위치를 굳혔다. Markovic 에 의하면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운동이 바리코빈 이후 80 年만에 再發展한 마르크스의 嫡子⁴⁹⁾ 라는 것이다.

Ⅲ. 産業民主主義的 定向

유고슬라비아 勞働者自治管理制度에 관심있는 많은 學者들은 이 제도를 産業民主主義視角에서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産業民主主義 (industrial democracy) 의 意味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크게는 (macro) 古典的 民主主義 理論家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參與民主主義의 立場에서 작게는 (micro) 生産組織內에서 組織內民主主義를 실현하기 위한 努力으로

48) 朝鮮의 경제 Model 과 유고슬라비아의 경제 Model 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Teresa Rakowska-Harmstone and Andrew Gyorgy (ed.), Communism in Eastern Europe (Indiana Univ. press, 1979), p.219.

	朝鮮의 經濟 模型	유고의 混合 經濟 模型
目 標	1. 國家權力에 의한 社會主義 2. 生産手段의 國有化 3. 上記 目的을 위한 새로운 社會秩序 및 準據集團 創出	1. 國家枯死, 脫國家化 2. 勞働者에 의한 社會的 財產管理 3. 個人的 幸福
수 단	位階的 構造의 國家組織	各 企業의 自治
方 法	1. 國家所有 2. 中央統制 計劃經濟 3. 財貨의 行政的 配分 4. 行政的 支配 5. 行政府에 의한 賃金分配 6. 全面的인 國家豫算의 統制 7. 餘分으로서의 消費 8. 農業의 集産化	1. 社會所有 2. 社會主義的 經濟 3. 市場經濟體制 4. 財政的 手段 5. 勞働者에 의한 賃金決定 6. 經濟活動에 따른 國家豫算의 分散 7. 獨立的 優先要素로서의 消費 8. 農民의 商業的 協業

49) Mihailo Markovic', Dialektik der Praxis, Frankfurt a.M., 1968, S. 94 ; 安秉永, 앞의 논문 p.145에서 再引用.

理解되어진다.

먼저 參與民主主義의 立場을 소개해보면 그 知的 淵源은 꽤 오래다. 參與를 強調하는 古典的 民主主義理論家들에 의하면 모든 政治的 問題에 對한 市民의 參與가 個人能力的 啓發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前提에 입각하고 있다. 50) 이렇게 볼 때 參與를 통한 市民의 教育과 能力을 發達하기 위해서는 民主的 參與過程이 가정 학교 作業장을 필두로 全 政治 經濟 社會組織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51) 다른 말로 한다면 政治領域 뿐만아니라 社會經濟的인 私的 領域도 民主主義의 理念과 原理에 의해서 運營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古典的 民主主義理論家인 루소(J.J.Rousseau)는 參與的 體制가 個人的 性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對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에 의하면 參與過程을 通해서 個人은 책임있는 政治的 社會的 行動을 할 수 있는 能力을 배우고 私的 利益과 公的 利益을 조화시킬 줄 아는 市民으로 주도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루소는 參與民主主義를 단순히 制度上의 問題가 아닌 그 이상의 것으로 생각했다. 52) J.S.Mill도 역시 루소와같이 參與民主主義의 주요한 機能으로서 教育的 機能을 強調한다. Mill은 産業構造가 권위적인 것으로부터 民主的인 構造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저서 「Political Economy」에서 Mill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人類가 發展을 계속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現在와 같은 주인으로서의 資本家와 침묵속에서의 勞働者들이 存在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때가 되면 勞働者들 스스로가 평등하게 혹은 集團的으로 資本을 均등하게 所有하고 經營者들 또한 勞働者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해고될 수 있는 聯合(association)의 형태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53)

여기에서 Mill은 地方水準에서의 政治적 토론과 같은 民主教育外에도 市民들이 全一生을 보내는 産業組織에서의 民主教育이 重要하다는 點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의하면 産業部門은 集團的인 일의 管理속에서 政治的 經驗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産業組織에 있어서 權威構造의 民主化를 通해서 個人은 民主的 能力의 發達을 함양할 수 있고 이러한 構造의 變化는 個人的 參與를 자신의 權利로서 생각할 수 있는 心理的 教育的 效果를 提供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現代産業社會의 맥락에서 參與民主主義를 本格的으로 다룬 사람은 G.D.H. Cole에

50) Peter Bachrach, The theory of Democratic Elitism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1969), 黃義坊(譯)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78), 19面.

51) H. Peter Dachler and Bernard Wilpert, op. cit., p.5.

52) Carole Pateman,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1970), pp.24-25.

53) Ibid., pp.28-35.

와서다.⁵⁴⁾ 그는 주로 그의 「길드社會主義」理論에 근거하고 있는데 먼저 現代民主主義의 주요 특징인 투표에 의한 民主主義는 진정한 政治的 平等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市民的 平等을 단순히 形式的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므로서 政治的 權力이 不平等하게 配分되어 있다는 事實을 숨긴다는 점을 自己理論의 出發로 삼고 있다. 역시 Cole도 루쏘나 밀처럼 參與의 教育的 機能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現代政治의 광범위한 메카니즘에 對하여 個人의 統制가 不可能한 것은 現代國家가 너무 크고 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個人이 작은 社會的 單位內에서조차도 自治의 基本을 배울 기회마저 주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의하면 이러한 自治의 基本을 배울 수 있는 터전이 보통사람들이 그의 一生을 대부분 보내고 있는 産業組織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聯合을 통한 協同의 必要性을 力說한다. 그리고 이 聯合속에서 자신의 自由를 침해받지 않고 자신의 意志를 行動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聯合과 그 規制에 적극 參與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個人의 自治的 (self-governing) 能力을 갖추면 스스로 意思決定過程에 自由롭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生産組織內에서 權力의 平等화 (power equaliz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論議를 要約하면 理念이나 思想面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政治面만이 아니라 社會面 經濟面에까지 확충시켜 經濟와 産業의 運營도 民主主義理念과 原理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⁵⁵⁾는 것이다. 바꾸워 말하면 國家의 水準 (national level)에서의 代議制의 存在만으로는 形式的인 政治的 民主主義에 그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實質的인 民主主義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人民의 대다수가 人生의 가장 귀중하고 가장 건강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工場과 事務室에까지⁵⁶⁾ 參與民主主義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社會的 民主主義 (societal democracy)가 實現되기 위해서는 産業組織內의 권위구조가 먼저 民主化되어야 하고 여기서 얻은 政治社會化의 經驗은 社會全般에 걸쳐 民主主義의 教育的 機能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古典的 民主主義 理論家들의 知的 關心은 産業組織에 있었으며 産業組織內의 民主化는 政治的 民主主義와 아울러 社會的 民主主義를 實現하는 주요한 고지로서 理解되어 지고 있다. 여기에서 産業民主主義의 理念的 淵源을 읽어볼 수 있다.

한편 論議의 범위를 全體政治體系가 아닌 組織內의인 問題로 좁혀서 보면 組織內 民主主義 (organizational democracy)를 實現하기 위한 하나의 理念的 指向으로서 産業民主主義를 理解할 수 있다. 現代社會가 점차로 대규모화 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産業組織이 피라밋型的

54) Ibid., pp.35-44.

55) 金潤煥, "産業民主主義의 世界的 潮流와 韓國的 風土", 金潤煥 外 5 人, 勞働者 運動과 産業民主主義 (서울: 民衆社, 1983), p.118.

56) 김진균, 비판과 변동의 사회학(서울: 한울, 1983), p.289.

권위주의적인 管理構造를 特徵으로 하는 官僚制化⁵⁷⁾로 고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構造를 根本적으로 變革시켜서 勞働者들의 經營參加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組織內 民主主義에 關心있는 많은 사람들은 官僚制에 관한 分析和 批判부터 始作한다. 특히 이들의 知的 關心은 官僚制가 어떠한 맥락에서 專門家層으로 意思決定權力이 移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對해서 이들은 官僚制를 抽象的인 側面과 具體的인 側面으로 나누워서 分析함으로써 해답을 시도하고 있다.⁵⁸⁾

官僚制의 分析에서 具體的인 側面은 行政體系 (administrative system)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日常의 결정등의 수행에 책임이 있는 조직의 執行集團 (executive group)과 그들이 使用할 수 있는 生産手段 및 諸資源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規則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行政體系의 주요 價値는 能率性 (efficiency)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官僚制의 抽象的인 側面의 分析에는 委任者 (mandator)와 執行者 (executive)의 區別이 중요한데 前者는 組織의 設立을 주도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組織의 福祉와 效果에 對해 누구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集團을 말하는데 이들 委任者들은 組織의 目的과 利益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넓게는 代議制나 國家에 對해서는 選舉權者가 좁게는 私企業의 管理에 있어서는 資本所有者가 政治的인 政黨에서는 黨員들이 여기에 屬한다.

그러나 委任者는 자신의 組織에 對해서 完全히 管理하는 것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組織의 生産 (그것이 物質的인 것이든 非物質的인 것이든)을 감독 管理할 수 있는 特定集團을 必要하게 되는데 이 集團이 바로 執行者集團 (executive group)이다.

그런데 組織의 規模와 복잡성이 가속화될수록 서서히 權力은 委任者集團에서 執行者集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는 執行者集團이 組織의 能率性을 위한 專門的인 知識과 管理技術을 독점함에 따라 재량권도 증가하는데서 오는 당연한 結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管理制는 自律性 (autonomy)을 가지게 되고 전문화 및 기득권의 論理에 따라 自己永續化하려 하며 時間이 지날수록 執行者의 權力은 커져서 委任者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委任者의 代表 (representative)로서의 機能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産業組織은 권위적이며 계층적인 構造的 特徵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더우기 이러한 結果는 現代組織理論이 官僚制의 抽象的인 側面을 망각한 채 具體的인 側面인 行政體系의 能率性만 強化하는 方向으로 研究가 진행되어 온 데도 그 원인的一部分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組織의 2가지 目的 i) 行政的인 能率성과 ii) 代表性있는 行政 사이의 모순관계를 同時에 解決할 수 있는 方法을 參與理論 즉 組織內 民主主義 理論에서 찾아보자는 것이다. 여기서 産業民主主義의 理念이 천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7) 여기서 말하는 官僚制 개념을 Max Weber가 말하는 理想型으로서의 合理的인 組織을 말한다.

58) Bengt Abrahamsson, op. cit., p.21.

以上에서 勞動者들에 의한 經營參加가 産業民主主義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産業民主主義는 대체로 勞動者들이 다양한 形態로 그리고 程度의 差異에 따라 企業의 意思決定過程에 참여하는 모든 管理形態⁵⁹⁾를 지칭한다고 定義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産業民主主義에 있어서 주요한 問題는 意思決定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組織內에 存在하는 權力關係의 構造이며 이것이 어떠한 틀로 배열되고 있는가 하는 點이다. 그러므로 産業民主主義에 관심있는 많은 학자들은 組織內 民主主義가 실현될 수 있는 실질적인 條件으로 權力的 平等化 (power equalization)를 크게 강조하며 따라서 組織內에 存在하는 社會權力構造의 틀에 비상한 관심을 쏟는다.⁶⁰⁾ 이와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용주가 企業內의 사회적 분위기를 改善할 目的으로 피고용인에게 보다 人間的으로 接近하는 人間志向의 管理 (human-oriented management)의 경우는 擬似參與 (pseudo-participation)에 불과할 뿐 産業民主主義와는 直接 連脈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위의 경우 기존의 권위구조 내지 權力關係의 틀에는 아무런 變化없이 協議등을 강조하는 리더십 스타일의 變化를 통하여 노동자들로 하여금 意思決定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고안된 일종의 管理技術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⁶¹⁾ 勿論 이러한 心理的 接近도 직무확대 직무순환 직무재설계등과 같은 작업환경의 改善을 통해서 현대 산업사회의 「Taylor」式 組織을 人間化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에는 틀림없으나 基本的으로 자기 勞動에 對해서 스스로 統制力을 行使하고 싶은 人間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참여의 mechanism이 制度化되어 있지 않은한 바른 意味의 참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産業民主主義의 理念의 出發은 현대 산업사회의 經濟權力의 集中은 所有에서가 아니라 그 管理에서 연유한다는 點이다. 따라서 산업민주주의는 所有條件은 원칙적으로 불문에 붙인다. 그 所有形態가 부르조아적 所有 내지 經濟的 統制이든 또는 共產主義의 官僚主義의 絶對的 權力이든 간에 그 所有의 條件에 대해서가 아니라 人間에 對하여 즉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이 그들의 勞動으로 생산과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는 것이다.⁶²⁾ 일체의 經濟權力이 그 本質 및 그 所有者와는 關係없이 效果的으로 統制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이 統制는 經濟的인 것일 수도 있고 政治的인 것일 수도 있고 또 社會的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⁶³⁾

여기에서는 참여의 문제를 급진적인 視角에서 接近하는 學者들의 見解를 中心으로 유고슬라비아 勞動者自治管理制가 指向하는 참여의 형태를 分析해보고 저 한다. 勿論 世界第2次大戰

59) Rudi Supek, op. cit., p.49.

60) 安秉永, 앞의 논문, p.145.

61) Sidney Verba, "Democratic participation", in Au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2: pp.53-58.

62) R. Maerker, Mitbestimmung; Industrial Democracy in west Gemany, Friedrich-Ebert-Stiftung, Bonn, 1978, p.6; 김진균, 앞의 책, p.306에서 再引用.

63) 사회주의 동맹, 20세기 사회주의, 임종철역, 서울, 일신사, 1979, p.277.

이후 서구제국에서 制度的으로 정착된 다양한 형태의 경영참가⁶⁴⁾ 와도 비교되어 질 것이다.

먼저 유고슬라비아 勞働者自治 管理制度는 完全參與를 指向하고 있다는 것이다.⁶⁵⁾ 産業組織에서 勞働者들이 管理的 問題에 어느 정도 實質的인 權力(power)을 行使하는 가에 따른 Pateman의 分類基準에 의하면 유고슬라비아 勞働組織(企業)에서는 생산자의 完全參與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완전참여(full participation)란 각 個人이 똑같은 權力을 가지고 意思決定에 참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똑같은 權力을 가진 生産者個人들이 意思決定에 참여자가 적대적 권력관계에 놓여 있는 어느 한 派(party side)에 屬하지 않고 똑같은 權力을 가지고 個人으로서 생산 및 의사결정과정에 등장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경우 個人은 그들이 代表해야 할 어느 特定한 세력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므로 自決의 意味가 그만큼 강해진다. 따라서 勞働者와 管理者의 集團區別이 무의미해지며 個人은 평등한 權力을 行使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서독의 共同決定制度的의 경우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역층에 勞使가 각각 같은 數로 대표되고 이들은 대체로 母集團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獨自的인 集團의 決意에 임하는 集團慣例⁶⁶⁾를 쌓고 있다는 點에서 完全參與의 형태에 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로 工場이나 作業場과 같은 生産의 直接遂行現場의 경우 勞使의 共有的 權威가 存在하지 않으며 使用者의 權威가 支配하는 位階的인 權威構造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點에서 部分참여(partial participation)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國有化를 원칙으로 하는 國家主義的 社會主義的의 경우에도 국가대표로서의 企業主의 위치는 끝내 생산자인 勞働者의 의사결정권위를 크게 制限한다고 보고 있다. Supek은 적대적 권력관계에서 오는 갈등적 참여의 틀을 完全히 불식하지 못한 例들을 가리켜 生産要素-勞働, 資本, 國家-의 참여(participation of productive factors)라 칭하며 유고슬라비아 勞働者自治管理制度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生産者의 참여(participation of producers)와 區別하고 있다.⁶⁷⁾

둘째로 유고슬라비아 勞働者自治管理制度는 政治的 參與(political participation)를 指向하고 있다는 것이다.⁶⁸⁾ Abrahamsson은 組織內에서 勞働者들의 參與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社會的-技術的 參與와 政治的 參與의 2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前者는 주로 낮은 수준에서의 意思決定에 後者는 높은 水準의 目標設定이라든가 장기계획등에 참여하는 狀況을 뜻한다. 사회기술적 참여는(socio-technical participation) 一種의 人間關係論的 管理類型

64) 各國의 다양한 근로자 경영참가제도에 對해서는 金斗熙, “動勞者의 經營參加制度에 관한 研究”,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 16집, 1983, pp.40-46 참조.

65) Corole Pateman, op.cit., p.73.

66) 安秉永, 앞의 논문, p.146.

67) Rudi Supek, op.cit., pp.41-42.

68) Bengt Abrahamsson, op.cit., pp.181-191.

으로서 生産過程에서 생산자들의 소외현상의 경감을 위한 管理戰略이기때문에 生産性向上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참여자의 역할을 強調하는 최저수준의 참여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영국의 石炭産業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G.D.H.Cole이 고안했던 생산과정 수행의 集團的 管理形態에 흡사하나 단지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生産過程의 집행과 聯關되는 抵位의 管理水準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社會技術的인 參與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反해서 政治的 參與란 直接生産者인 勞動者들이 모든 조직수준 特히 보다 높은 수준의 意思決定過程에 참여하는 것을 前提로 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直接的 利害關係問題 예컨대 임금문제 노동환경등 외에도 조직의 長期計劃 生産量의 決定 및 對外政策등 여러가지 문제의 결정에 주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組織關係는 委任者(mandator)와 執行者(executive)의 경우로 형성되며 위임자의 요구의 변화에 따라 執行者의 役割은 再定義되어 變化의 진폭은 환경까지 미친다. 유고슬라비아 勞動者自治管理制度는 이의 典型으로 이해되어 진다.⁶⁹⁾

셋째로 유고슬라비아 勞動者自治管理制度는 合法的 參與를 指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生産組織內에 있어 勞動者들의 參與의 근거가 制度化되어 있는 경우로서 勞動者의 經營參加가 合法的 權利로서 保障되어 있는 참여형태를 말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참여의 근거가 法律 團體協約 및 憲法에 基礎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勞動者自治管理는 하나의 憲法的 權利로 정착되므로서 그 制度化的 기틀이 가장 특정한⁷⁰⁾ 公式的 參與制度라고 할 수 있다. Rudi Spuk에 의하면 유고슬라비아에 있어서 勞動者自治權은 自由로운 生産者로서 個人이 다른 생산자와 자유롭게 언제든지 聯合(association)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聯合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點에서 個人的 權利이자 基本의 人權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內容上 勞動과 勞動의 產物에 對한 決定權을 갖는 經濟權(economic right)이자, 生産組織은 勿論 社會的 共同體(social community)의 管理에도 平等한 參與가 保障되는 社會權(social right)라는 것이다.⁷¹⁾ 유고슬라비아는 勞動者들의 이러한 合法的 參與의 保障을 通해서 自治組織의 全體政治體制로의 확산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 結果 社會生活의 政治的 公的 經濟的 私的 領域의 區分에서 오는 政治的 疎外の 중결을 가져왔다는 것이다.⁷²⁾

이런 點에서 이 나라의 自治管理社會主義는 制度化的 程度 權利의 內容에 있어 서구 산업민주주의의 諸制度와 차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째로 유고슬라비아 勞動者自治管理制度는 意思決定의 全過程에의 參與를 指向한다는 것이다.

69) Ibid, p.190.

70) 安秉永, 앞의 논문, pp.147-148.

71) Rudi Spuck, op.cit., p.56.

72) Ibid.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직접적 연루(連累)는 組織內 民主主義의 知的 淵源이 되는 모든 이론들이 준거하고 있는 參與의 理想的 形態이며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의사결정과정은 대체로 준비단계 결정단계 집행단계로 나누워 볼 수 있다.⁷³⁾

준비단계 (preparatory phase of action)는 세단계로 나누워 지는데 기업의 수입, 기금에 관한 정보등은 수집하는 정보수집단계와 具體的 代案을 提示하는 提案段階, 提出된 代案에 對한 協議를 하는 討論段階로 나누워진다. 또한 決定段階 (decision making phase of action)는 실제로 조직의 구체적인 代案에 對하여 결정하는 단계를 말하며 실현단계 (realization phase)는 결정된 사항을 실천하는 단계로 결정의 집행, 집행의 統制, 집행의 실패에 對하여 제약을 加하는 制裁단계로 나누워진다. 그런데 이른바 유사참여로 규정한 人間關係論의 管理形態의 경우 대체로 노동자들은 心理的 相談的 參與 (psychological and consultative participation)를 통하여 의사결정의 준비단계에는 얼마간 關與하나 실제에 있어 결정 및 집행과정에는 참여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반면 서독의 共同決定制度의 경우 대체로 준비 및 결정단계에는 勞使가 함께 공유적 권위 (shared authority)를 行使하나 執行過程에서는 使用者측의 權威가 決定的이다. 한편 이에 反하여 유고슬라비아 勞働者自治管理制度는 意思決定의 全過程에의 參與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Corole Pateman, Rudi Supek, Bengt Abrahamsson 같은 급진적인 시각을 가진 학자들에 의하면 유고슬라비아 勞働者自治管理制度는 個個의 生産者가 母集團에 구애됨이 없이 合法的인 權利를 가지고 政治的인 參與와 같은 높은 水準의 意思決定 過程을 비롯한 意思決定의 全段階에 참여하는 完全參與 (full-participation)를 指向하는 理想的 模型으로서 이해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視角에 의하면 世界第2次大戰後 서구 諸國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勞働者 參與制度는 기껏해야 부분참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産業 組織內에서 勞使가 意思決定에 참여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사용자 측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權力의 平等화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V. 結 論

本 研究은 이때까지 마르크스주의와 産業民主主義라고 하는 두 視角에서 유고슬라비아 勞働者自治管理制度의 理念的 定向을 論議해왔다. 前者는 生産手段의 社會化와 生産者의 自治的 決定이, 後者는 組織內의 權力의 平等化가 문제의 핵심이다.

73) Malden Zvonarevic' "Social power, Information and Motivation", Josip obradovic' and William N. Dunn (eds.), op.cit., pp.179-180.

그러면 理念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운영상의 問題點은 무엇인가? 는 다음으로 究明되어야 할 과제인데 이것은 本研究의 범위를 벗어나는 問題이다. 다른 말로한다면 理想과 現實 規範과 實際사이의 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問題다.

이것에 對한 回答은 經驗적인 研究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作業이지만 대체로 노동자의 自治機能과 전문관리적 經營기능간의 갈등구조속에서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見解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스트라이크의 주된 대상이 政治行政的 環境⁷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최고관리자인 企業長등 經營관리층을 겨냥한다는 사실에서 명백해진다. 이렇게 볼 때 이나라 자치관리 제도는 아직도 기술관료주의의 망령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늪속에서 헤엄치고 있다는 느낌이다.⁷⁵⁾

74) 1947年 가을에 유고슬라비아는 경제분야와 國家行政에 이어 광범위한 分化가 시작됐다. 점점 더 많은 권한들이 연방관청에서 개별공화국 즉 지방인민위원회로 넘어 갔다. 1947年만해도 10만이 넘는 품목의 생산이 중앙기관에서 계획되어졌는데, 1950年 초가 되면 품목의 생산 결정이 점점 더 하부 기관에서, 각 개별기업체에서 이루어진다. 1952年 이후부터는 유고슬라비아에는 중요한 투자나 기본 균형을 위한 중앙의 골자계획만이 남는다. 볼프강 레몬하르트, 앞의 책, p.149.

75) 安秉永, 앞의 논문, p.180.

Summary

**A Study on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Workers' Self-management System in Yugoslavia**

Ko Choong-suk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some aspects of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workers' self-management system in Yugoslavia.

From the viewpoint of Marxism, the system has accomplished what Marx means by socialization of production-means and self-determination free producer while, on the other hand,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ponents of an industrial democracy, the system is judged to be orientated toward equalization of power relations in organization.